멋진 이야기 만드는 라운드가 훌륭한 골프

이기윤
(현)위드스트리 대표

골프는 섹스요, 섹스는 쾌락이다. 쾌락은 행복과는 다르다. 억지로 섹스를 할 수는 있어도 사랑의 감정을 억지로 가질 수는 없다. 쾌락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성취감이 된다지만 그것 역시 삶을 대표할 수 없다.

그런데 골프를 쾌락으로 접근하면 거친 스트레스의 바다를 항해하며 경쟁이나 승부로 무수한 적(?)을 만들게 된다. 티그라운드와 그린을 연결하는 넓은 길을 페어웨이라 부르는 이유를 짐작해 보자.

'페어웨이'란 항해 용어로 '암초 사이의 안전한 항로'라는 뜻이다. 스트레스의 바다가 연상되지 않는가. 골프를 쾌락이 아닌 사랑으로 접근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많은 친구와 이야기를 만들며 만년 그린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노인이 되어서도 골프를 즐기면 성공한 사람이다. 골프는 건강해야하고, 기호가 일치하는 친구가 있어야 하고, 재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 한양CC는 성공한 노인들의 광장이다. 골프를 끝내고 탕 속에 앉아 있으면 그런 느낌을 주는 대화를 많이 들을 수 있다.

"이야~ 아까 그 8번 홀에서 말야. 공이 그렇게 홀컵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 드라마지. 정말 멋진 반전의 드라마였어."

"나도 황홀했어. 그런 이야기 때문에 난 죽지 못하겠어. 이렇게 재미있는 골프를 두고 어떻게 죽어. 천국이라도 가면 좋을까. 지옥에 간다면…" "걱정 마. 지옥에는 더 멋진 골프장이 있대. 클럽이나 슈즈도 최고급이래." "나도 들었어. 그러나 그럼 뭘 해. 공이 없다는 걸."

돈도 좋고 승부도 좋지만 인간을 압도적으로 매료시키는 건 실감나는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섹스를 초월한다. 남녀 구별없이 골프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야기의 빈곤 탓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난 호 레스비언 섹슈얼리티에서 이름을 소개한 노벨문학상 수상자 패트릭화이트의 스토리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인간의 나무'라는 탐미적인 심리소설을 써서 문화적 열등의식에 시달려 오던 호주인들을 열광시키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페트릭 화이트는 자전적 소설들을 통해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인권을 주장한 그 방면의 선지자였다.

페트릭 화이트는 1912년 영국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호주인이었지만 영국 여행 중에 태어난 것이다. 덕분에 그는 영국인으로 영국에서 교육받으며 성장했다. 그의 문학도 영국의 대문호인 제임스 조이스나 D.H 렌스, 버지니아 울프 등의 영향을 받았다.

런던이 독일군의 폭격을 받자 바로 영국 공군에 자원 입대하여 정보 장교가 된 그는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싸이프러스, 팔레스타인, 그리스 등지를 떠돌면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 평생의 반려자가 된 메놀리 루카키스를 그리스 전선에

서 만난 것이 그에게는 일생일대의 사건이었다. 전선에서의 밤은 길고 지루했다. 어느 날 밤, 페트릭은 그리스 사관이었던 메놀리와 함께 밤을 새우면서 대화를 하게 된다. 에게해(海)의 별들이 유난히 아름답던 밤, 그들은 에게해에 떠도는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했다. 유난히 지적 호기심이 많았던 페트릭은 해신(海神)의 목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려 오는 메놀리의 얘기들에 빠져 밤을 잃어버린 채로 수많은 날들을 보냈다. 이성으로부터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전쟁이 끝나자 페트릭은 고민에 빠졌다. 꿈결 같은 그의 목소리를 남겨두고(오직 멜로니를 통해야만 얻을 수 있는 '시적인 쾌락'을 포기하고) 혼자 귀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멜로니를 설득하여 1948년 함께 호주로 귀국한다.

시드니 중심가에서 약간 비껴난 센테니얼파크에 집을 마련했고, 동거하면서 그의 전성기를 맞게 된다. 그것이 메놀리의 영향을 받아 페트릭 화이트라는 거장이 탄생하는 과정이다. 그 동안 지향해 오던 영국 풍의 문학에서 완전히 환골탈태하는데 메놀 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는 평생을 동성연애자로 살면서 멸시받았던 서글픔이 담겨 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그는 자전적 소설을 통해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인권을 주장했다. 노력은 헛되지 않아 호주는 동성연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고, 유산 상속은 물론 가족 수당까지 지급하게 되었다.

그가 멜로니와 살았던 센테니얼 파크 주변은 동성연애자의 성지가 되었다. 매년 2월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게이와 레즈비언을 위한 '마디그라 축제'라 벌어지는데 인기가 높아 호주 국영 ABC-TV가 생중계를 한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계 종사들이 그곳에 몰려 사는데, 동성연애자 중에 예술계 종사자들이 특히 많은 영감을 얻고 지적 교류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호에 한국에서 여성 골퍼가 늘어나는 이유는 성적으로 소외되거나 억눌린 생활에서의 해방감을 골프로 위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비쳤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회를 보건대 이 같은 느낌은 어쩌면 여성보다 남성이 심할 수도 있다.

좋게, 뭉뚱그려 말한다면 골프장에 모여 '동병상련(同病相憐)하는 현상' 정도로 희석할 수 있을까? 섹스나 성을 논하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골프의 매력은 많은 이야기가 거기서 피어난다는 데 있을 수 있다. 멋진 이야기를 만드는 골프가 진정으로 골프를 정복하는 지름길이다.